

스티로폼 포장재의 환경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



공재홍 / (사)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

지금 전 세계에서 합성수지를 기본 소재로 하는 각종 포장재의 정부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일 것이다.

단지, 매립할 경우 장기간 썩지 않고 소각할 때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환경적 논리로만 분석했을 때는 지극히 정답일 수도 있다.

그러나 합성수지 포장재는 지구상 현존하는 각종 포장재 중 제품 포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 외에 편리성, 생산성, 경제성, 판매 촉진성, 보관,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합성수지 포장재를 추월하는 포장재는 없다.

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합성수지 천국이다. 항공기, 자동차, 선박, 섬유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합성수지를 제외한 산업은 상상도 할 수 없다. 여기에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% 내외에 불과하다. 그럼에도 수십만 종업원들의 생활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합성수지 포장분야만이 유독 규제가 많은 것은 경제적 논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형성에도 어긋나는 심히 불공정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.

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무조건 규제보다는 재활용, 회수시스템, 포장재를 재활용한 제품개발, 유독가스 발생이 없는 소각방법 개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 「환경적 논리」와 「경제적 논리」 모두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윈-윈 전법의 정책을 입안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.

